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6~7/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6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초기불전002)*개정판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3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8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9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5	재미있는 우리 사찰의 벽화이야기	권영한	전원문화사	10	선심초심(어떻게 선수행을 할것인가)	스즈키 순류/정창영	김영사

책세상

행복하고 싶다면 자비를 실천하라



불교경제학
클레어 브라운 지음
박찬국 번역/ 1만8000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전통적인 경제학은 삶의 질이 1인당 GDP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무한하고 무분별한 경제 성장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경제 성장은 환경위기와 빈부격차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부를 획득하고 소비하는 데 몰두하게 만든다.

세계적인 불교경제학자 클레어 브라운 버클리주립대학 명예교수의 〈불교경제학〉은 자유시장경제학은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환경위기와 국가 간 개인 간 빈부격차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면서 불교경제학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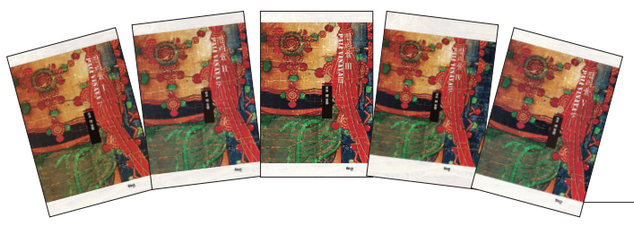
'불교경제학'이라는 용어는 슈마허(E. F. Schumacher)가 1973년에 출간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인간 중심의 경제학(Small Is Beautiful: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슈마허는 장시간 노동과 자원의 고갈 등 소득 증대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예측했다. 그는 물질적 재화의 증대보다도 개인의 성품 발달과 인간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주창했다. 슈마허의 관점에서 불교경제학의 목표는 '최소한의 소비로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소유=행복' 자유시장경제학 비판
빈부격차, 기후위기 해법들 모색

그런데 과연 사람들은 무엇으로 행복하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은 자유시장경제학과 불교경제학 사이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차이와 관련이 있다. 즉 두 경제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전적으로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불교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중시하는 면도 있지만 관대하고 이타적인 면도 있다. 붓다는 모든 사람이 한없는 욕망과 불만족 같은 정신 상태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고 가르쳤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불교경제학의 관점에서 자유시장경제학을 비판하면서 환경위기와 빈부격차의 해법을 모색한다. 저자는 경제정책 목표를 GDP의 증대에서 찾지 않고 삶의 질 증대, 환경보호, 그리고 빈부격차의 해소에서 찾는다. 또한 정부가 이 세 가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언론이 그것들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게 되면 기업과 개개인들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초기 남방불교 율장 집대성



팔리율 I~V
보운 스님 국역/ 혜안
I · II권 각 4만원, III권 5만원
IV권 5만5000원, V권 5만원

팔리경전은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구전한 것을 토대로 기원전 1세기에 스리랑카에서 경율론 삼장 전체를 팔리어로 엮어 전승한 경전이다. 현재 남방불교의 중심에 서 있는 〈팔리율〉은 북방불교의 5대 광율(廣律)인 〈오분율〉 〈사분율〉 〈십송율〉 〈마하승기율〉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등과 같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형태를 갖춘 율장이다. 19세기 말 영국의 팔리성전협회에서 전체 5권으로 영역해 결집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제1권은 마하박가, 제2권은 출라박가, 제3과 4권은 비구와 비구니의 수타 비방가, 제5권은 파리바라로 구성됐다. 한역 율장과 비교해 본다면 마하박가와 출라박가는 한역의 건도(犍度)이고, 수타 비방가는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이며, 파리바라는 부수(附隨)로서 강요(綱要)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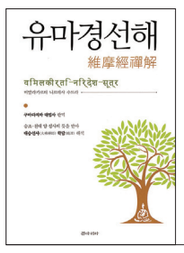
최근 도서출판 혜안이 간행한 〈팔리율 I ~ V〉는 그간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십송율〉 〈마하승기율〉 등 초기 북방불교 율장들을 국역하는 작업을 해온 조계종 교육아사리 보운 스님이 남방불교 율장을 〈남전대장경〉의 분류체계를 인용해 대분류로서 제1권부터 제5권으로 나누어 국역한 것이다. 2022년 〈팔리율 I 〉을 처음 간행한 데 이어 2023년 말 〈팔리율 V〉를 마지막으로 남방불교 율장 국역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쾌거이며, 나아가 2013년 근본설일체유부의 율장을 국역한 이래 10년간 초기불교 율장의 국역이라는 큰 원력을 세워 용맹정진한 보운 스님의 대장정을 일단락 짓는 결실이다.

보운 스님은 "한역 율장에 회향을 마치고 경장 번역을 준비하던 때 〈팔리율〉의 계목과 구성의 차이점을 비교 연구해 진보된 율장의 유통을 위해 노력하는 수행자들을 위한 도움이라도 주고자 새롭게 번역을 발원했다"면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인도 초기불교의 계율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그 핵심 사상과 내용들은 오늘날 승가에서도 여전히 지켜야 할 유용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로 출가한 보운 스님은 문학박사로 '통합종단 이후 불교의례의 변천과 향후 과제'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술로 〈신편 승가의범〉 〈승가의계〉 등이 있다. 현재 조계종 교육아사리(계율)를 역임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선불교 새로운 대안 제시



유마경선해
구마라지바 한역
학담 스님 해석
푼다리카 펴냄/ 3만 5000원

〈아함경〉 평석 1만 2000페이지와 〈조론〉 해석 1200페이지 등 대작을 저술한 학담 스님이 〈유마경선해〉를 발간했다.

〈유마경〉의 산스크리트 원이름은 '비말라키르티 니르데샤 수트라'로서 '비말라키르티 거사가 설한 경'이라는 뜻이다. 비말라키르티는 동아시아에서 유마거사로 널리 알려진 이로, 세간의 복덕과 출세간의 지혜를 모두 갖춘 큰 보디사트바 장자(長者)이다.

〈유마경〉은 인도에서 붓다 니르바나 이후, 출가주의에 갇힌 성문교단의 틀을 깨고, 붇다 상가정신의 보편주의를 새로운 시대 상황 속에서 지향했던 대승의 보디사트바야나 상가 실천운동 시기를 반영한다. 이 경전이 밝히고 있는 실천정신이 부파불교시대 왜곡된 연기론의 보편적 해탈과 상가정신의 새로운 회복 운동의 모습이다.

학담 스님은 이번 해석서에서 대승선(大乘禪)을 이 시대의 불교, 선불교의 새로운 대안, 억압된 문명이 강요하는 환상의 극복, 분단된 민족사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스님에 따르면 대승선은 연기론적 선정의 다른 이름이다. 대승선은 '선 없는 교'와 '교 없는 선'을 동시에 넘어서며 휴식 없는 노동과 노동 없는 휴식을 동시에 지양한다. 대승선은 생각(念)과 생각 없음(無念)의 하나 됨을 지향하며 모든 분단과 단절, 갈등과 충돌 속에 둘 아님(不二)과 화쟁의 길을 제시한다. "불교의 위기는 제도개혁만으로 극복될 수 없다"고 말한 학담 스님은 "불교의 위기는 세계관의 위기며 실천론의 위기"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유마경〉이 곧 둘이 아닌 화쟁의 길이며, 선과 역사, 자아의 해탈과 정토가 둘이 아닌 대승선의 길이라고 설명한다.

학담 스님은 1970년 도문 스님을 은사로 분황사에서 출가했다. 〈육조법보단경〉 등 30여 권에 이르는 불전해석서를, 〈학담평석 아함경〉 12책 20권의 방대한 해석서를 발간했다. 2016년 사단법인 문화유산가꾸기 푼다리카 모임을 설립, 우리사회에 조화와 상생의 문화, 평화와 소통의 문화를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친절한 해석 담긴 삼국유사 번역서



삼국유사
흥법 · 탑상편
일연 스님 지음
신대현 번역/ 2만 5000원

우리의 고대사 연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기본이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를 정사로 보지 않지만 그래도 〈삼국사기〉가 담아내지 못한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폭넓게 다룬다. 특히 단군 신화를 비롯한 우리 민족의 신화와 설화, 그리고 방대한 양의 불교와 민속 신앙 자료가 한데 아우러져 있다.

이런 최고의 역사 문화서이지만, 지금까지 〈삼국유사〉 번역서는 대부분 원문의 충실한 번역과 여기에 어려운 용어에 관한 간단한 설명 정도에 그친 형태였다.

불교미술사학자인 번역·해설자 신대현 교수는 평소 "불교미술을 연구하려는 사람이라면 〈삼국유사〉를 들고 현장을 찾아갈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좇아, 〈삼국유사〉를 수십 번 넘게 읽으며 공부했다.

그 결과 이 책에서 '흥법'을 통해 삼국의 왕이 어떤 연유로 해서 불교를 알게 되었고, 불교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었는지 해설하고, '탑상'을 통해 일반 독자들이 우리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섬세한 해설들을 서술했다.

특히 '흥법·탑상' 이야기들에 얽힌 유적과 유물 사진들을 지면에 풍부하게 넣은 점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신중일 기자

지금 이 시대, 왜 인간 붓다인가?
붓다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가르침을 남긴 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경전 속 붓다의 삶은 신비로운
만능의 존재가 아닌, 우리처럼
괴로움과 고군분투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붓다의 인간적인 면모는
현대인들이 삶의 길을 찾는 데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지금 '인간 붓다'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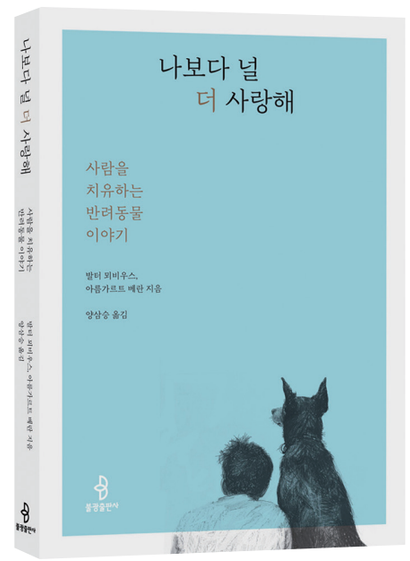


신화와 설화를 걷어낸
율장 속 붓다의 참모습
인간 붓다
이중표 역해
248쪽
23,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개, 고양이, 물고기, 송아지, 앵무새, 낙타 등
다양한 동물이 주는
치유 효과들에 대한 생생한 사례집

이 책의 저자 발터 뫼비우스는
독일의 저명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접한 동물과
사람 간에 맺어진 우정을 통해
아픔과 불행이 치유되는
사례들을 관찰해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했다.





금강 스님,
한국동물매개심리료학회
김옥진 교수,
〈노견일기〉
정우열 작가 추천!

사람을 치유하는
반려동물 이야기
나보다 널
더 사랑해
발터 뫼비우스,
아름가르트 베란 지음
양삼승 옮김
200쪽, 16,000원